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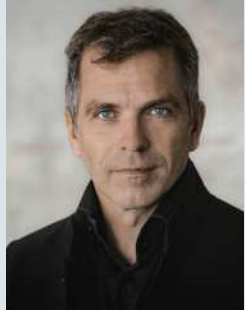
JANUARY 2020

Happy New Year

KBS
SYMPHONY ORCHESTRA

다음 정기연주회안내

예매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 예술의전당 02-580-1300
문의
KBS교향악단 02-6099-7400



지휘
디르크 카프탄
Dirk Kaftan

2/28 금요일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KBS교향악단 제751회

정기연주회 _ 거인의 태양

KBS Symphony Orchestra 751st Subscription Concert

PROGRAM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 "네 개의 마지막 노래", Trv 296
R. Strauss | Vier letzte Lieder(Four last songs), TrV 296

말러 | 교향곡 제1번 D장조 "거인"
G. Mahler | Symphony No.1 in D Major "Titan"

티켓가격
R석 7만 | S석 5만 | A석 4만 | B석 3만 | C석 1만



소프라노
황수미
Sumi Hwang



지휘
얏 판 츠베덴
Jaap van Zwede

3/26 목요일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KBS교향악단 제752회

정기연주회 _ 憧憬 동경

KBS Symphony Orchestra 752nd Subscription Concert

PROGRAM

슈만 | 첼로 협주곡 a단조, 작품129
R. Schumann | Cello Concerto in a minor, Op.129

브람스 | 교향곡 제1번 c단조, 작품68
J. Brahms | Symphony No.1 in c minor, Op.68

티켓가격
R석12만 | S석 9만 | A석 6만 | B석 3만 | C석 1만



첼로
키안 솔타니
Kian Soltani

1/1-31 calendar

- 초청 1/8 수요일 2020년 신년음악회
2020 New Year Concert P. 24
19:00 예술의전당 콘서트
- 초청 1/14 화요일 토요타 자선 병원 콘서트
KBSSO Charity Concert P. 30
18:30 고양 국립암센터
12:00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초청 1/15 수요일 토요타 자선 병원 콘서트
KBSSO Charity Concert
12:30 수원 아주대병원
17:00 분당 제생병원
- 초청 1/17 금요일 토요타 자선 병원 콘서트
KBSSO Charity Concert
12:30 부산 해운대백병원
15:00 대구 가톨릭대학교병원
- 정기 1/30 목요일 KBS교향악단 제750회 정기연주회
KBSSO 750th Subscription Concert P. 10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정기 1/31 금요일 KBS교향악단 제750회 정기연주회
KBSSO 750th Subscription Concert
19:30 노원문화예술회관

DESIRE TO FLY HIGH

더 높이 날기 위한 비상

글 | 김은중 음악칼럼니스트

2020년은 작곡가 루트비히 판 베토벤이 탄생 250주년을 맞이하는, 전 세계가 기다려온 축제의 해입니다. 악곡과 시대 형식의 완전체를 세상에 내놓고, 스스로 이 형식을 깨뜨리며 ‘거대한 낭만의 숲’을 조성해 그 숲에 수많은 낭만 시대의 작곡가들의 활동 무대를 만들어준 베토벤. 2020시즌 KBS교향악단은 그 어떤 악단보다도 깊이 있는 시즌 프로그램으로 베토벤을 집중 조명합니다. 여기에는 교향곡 1·3·5·6·7·9번과 바이올린 협주곡, 피아노 협주곡 세 곡에 두 곡의 서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12회의 연주회 30개의 작품 중 12개의 작품을 베토벤으로 꾸민, 전체 프로그램에서 무려 40%의 비중을 차지하는, 포커스와 어젠다(agenda) 자체를 베토벤에 집중한 대범하면서도 아카데미한 구성일 것입니다.

브람스와 차이콥스키 그리고 말러가 이 거대한 낭만의 숲에서 야심 차게 내놓은 1번 교향곡의 향연에 이어, 낭만과 인상을 거쳐 20세기에서 새로우면서도 다양한 길을 개척한 작곡가들의 작품과, 베토벤을 극복하고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우뚝 선 브람스의 네 개의 교향곡 전곡을 압 판 츠베덴의 ‘Jaap van Brahms 패키지’로 만나볼 것입니다. 9월에는 베토벤의 위대한 교향곡 5번 ‘운명’과 피아노 협주곡 ‘황제’가 만나고, 10월에는 브람스의 3번과 4번 교향곡 두 곡만으로 채우며 작곡가의 순도 높은 음악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흥미로운 축제를 위해 KBS교향악단을 거쳐 간 두 명의 전임 음악 감독, 정명훈과 드미트리 키타옌코가 기쁜 마음으로 악단을 다시 찾습니다.

파질 세이, 카티아 부니아티쉬빌리, 엠마누엘 액스, 제임스 에네스, 레일라 요세포비치 등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함께하는 협연무대와 그들이 준비한 레퍼토리 역시 흥미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세계적 연주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피아니스트들도 KBS교향악단이 마련한 2020시즌의 협연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8대 음악 감독 요엘 레비와 함께한 지난 6년 빌드 업(build-up)의 시간은 2020년 KBS교향악단이 더 높이 날기 위한 날갯짓이 되어 자유롭게 펼쳐질 것입니다. 1770-1975, KBS교향악단이 준비한 2020시즌 정기연주회 속 작곡가가 태어난 가장 빠른 연도와 가장 늦게 태어난 작곡가가 세상을 떠난 년도입니다. 베토벤과 쇼스타코비치의 것이지요. 205년의 시간 동안 음악사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진통하며 진화하였듯, 창단 64주년을 맞이하는 KBS교향악단의 지나온 세월 역시 성장과 진통과 진화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흥뻑 축하하는 축제, KBS교향악단이 더 높은 곳에 올라서서 날개를 펴고 자유로운 비상을 시작합니다.

THE FIRST QUARTER | 낭만의 숲 Romanticism, Forest

창작의 고통을 머금은 음악의 언어들이 생명력을 얻고 요동치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침내 소리의 조각들이 모여 음악의 문을 열면 ‘거대한 낭만의 숲’이 펼쳐진다. 3개월에 걸쳐 차이콥스키, 말러, 브람스의 ‘교향곡 1번’ 연주가 이어진다. 대평원의 신비로운 꿈속에서, 암흑 속 동트는 자연에서, 베토벤이라는 거인의 그림자 뒤에서 조심스레 자신들의 교향악을 세상이라는 거대한 숲에 등장시킨 작곡가들의 위대한 순간을 마주할 시간이다. 세 곡 모두 겨울날의 깊은 밤에서 시작해 새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는 위대한 여정을 담아내고 있다. 특히 3월, ‘브람스 1번 교향곡’ 연주 후에는 소생하는 봄기운을 머금은 악동의 향기를 만질 수 있을 것이다.

임동민은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f단조’로, 소프라노 황수미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네 개의 마지막 노래’로, 키안 솔타나는 슈만의 ‘첼로 협주곡’을 연주하며 KBS교향악단이 준비한 2020 정기연주회의 ‘거대한 낭만의 숲’에 들어선다. Jaap van Brahms! 츠베덴이 선보이는 브람스 교향곡 4곡 전곡 연주(Jaap van Brahms 시리즈 패키지)는 3월에 이어 10월(3번, 4번), 11월(2번)로 이어진다.

THE SECOND QUARTER | 베토벤의 부활 Beethoven Alive

2020년은 베토벤(1770~1827) 탄생 250주년을 맞이하는 해다. 예술가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한 인물이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승리의 메시지가 베토벤 안에 내재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베토벤을 찾는다. 절망을 겪은 예술가에게서 터져 나오는 신음과, 이를 극복하고 던지는 최후의 메시지가 개인을 넘어 인류가 위기를 겪을 때마다 큰 힘을 실어준다.

2020년 봄, 역동적인 7번 교향곡과 함께 KBS교향악단의 베토벤 탄생 250주년 페스티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레너드 슬래트킨, 브람웰 토비, 한스 그라프는 3, 5, 7번 교향곡을 연주하고, 악단의 상임지휘자를 역임한 정명훈과 드미트리 키타옌코가 6번과 9번 교향곡을 연주하면서 베토벤 축제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다. 지성적 바탕 위에 탁월한 리더십으로 세계 음악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한 이들 권위자의 품위와 격조 높은 베토벤에 자연스럽게 인도될 것이다.

베토벤의 숨결을 손끝으로 존속시키는 연주자들, 협연무대 역시 화려하게 구성됐다. 파쉴 세이는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카티아 부니아티슈빌리는 피아노 협주곡 1번을 협연하며, 바이올린 협주곡은 제임스 에네스가 나서서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줄 것이다.

THE THIRD QUARTER | 이정표 Der Wegweiser

베토벤은 형식을 완성함과 동시에 스스로 파괴하는 과정을 거친 전대미문의 작곡가다. 소나타 형식의 완전체를 세상에 내놓고, 스스로 이 형식을 깨뜨리며 실험 정신 가득한 과학자의 모습을 보였다. 어떤 이는 “가장 완벽한 형태의 교향곡은 7번이며, 베토벤을 포함한 이후 세대 모든 작곡가의 작품은 엄밀히 새로운 형태다. 브람스가 베토벤을 의식하며 운명적으로 내놓은 교향곡 일부에서만 베토벤의 흔적이 발견될 뿐이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혹자는 베토벤을 가리키며 ‘사색의 숲’이라는 표현하기도 한다. 길으로 웅장해 보이며 오를 수 없을 만큼 큰 산처럼 보이다가도 산기슭 숲으로 들어가면 보이는, 그가 보물처럼 숨겨놓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베토벤은 낭만의 길에 이정표를 세워 ‘낭만의 숲’에 슈베르트,

멘델스존으로부터 슈만과 브람스 등 수많은 낭만 작곡가들을 불러 모았다. 베토벤은 오래된 도식을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작품은 새로운 실험을 거쳐 새롭게 태어났다. 2020 시즌 하반기, KBS교향악단은 베토벤과 베토벤이 가리킨 이정표대로 두벽두벽 걸어나간 브람스의 사색의 숲에 온전히 집중한다.

THE FOURTH QUARTER | 위대한 물결 Great Wave

베토벤, 강철 같은 그는 누구인가. 끊임없는 정신적 투쟁과 인류애를 부르짖었지만, 한편으로 다가가기 힘든 마음의 벽이 있던 사람. 베토벤은 늘 고독한 고지에 서 있었고, 언제나 혼자였다. 장애가 있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미 동시대인들은 그를 진실의 순교자로, 예지자로, 선택받은 동시에 파멸하여 고통받는 자로 보았다. 그는 신에게 물었고, 누구보다도 사람을 그리워했다.

음악을 들으면 그 곡을 작곡한 작곡가가 어떤 화법을 가졌는지 대충 짐작이 갈 때가 있다. 때로는 괴팍하고 억살스럽기도 하지만 논리정연하고 기승전결이 뚜렷한 베토벤, 여리고 온순한 것 같지만 넘치는 마그마를 품고 있는 쇼팽, 생각이 너무도 깊고 많아 가끔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슈만... 브람스는 아마도 사고가 깊으며 진중했으리라. 두터운 화성과 미묘한 화음이 이어지고, 복잡하지 않은 듯 흐르면서도 가만히 보면 복잡한 리듬으로 구성된 브람스의 음악과 그의 음악 언어. 본인도 의식했듯 브람스는 고전과 낭만 사이에서 진통했다. 그러나 그 진통이 잉태한 인류의 유산은 거룩한 것이다. 묵직함과 따뜻함을 동시에 가진 브람스가 베토벤에게 넘겨받은 오선지에 스케치를 시작한다.

회원가입 안내

좌석등급별 가격

좌석등급	정가(12회 공연)	정기회원가격(30% 할인)
R석	1,120,000원	784,000원
S석	840,000원	588,000원
A석	600,000원	420,000원
B석	360,000원	252,000원
C석	120,000원	—

※ C석은 정기회원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기회원

순간을 함께하실 소중한 관객 여러분을 모십니다.

※ 총 12회 정기연주회를 할인된 가격에 만날 수 있는 제도

가입 혜택

티켓 | 정기, 기획연주회 20% 할인 ^{1인 4매} | 공연정보 안내 ^{SMS, DM}

신규 가입

- (1) 티켓인터파크 (<http://www.sac.or.kr/SacHome/sachome/main>) 내 '2020 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 패키지' 검색
- (2) 패키지 구매(공연 예매권 구매)
- (3) 각 연주회별 예매 페이지에서 공연 예매권을 사용하여 최종 결제

K — Lang 회원

KBS교향악단의 정기 및 기획연주를 합리적으로 즐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회비: 3만원)

가입 혜택

티켓 가격 20% 할인 적용 ^{1인 2매 한정} | 공연정보 안내 ^{SMS, DM}

가입방법

- (1) KBS교향악단 홈페이지 - 멤버십 안내 검색
- (2) 정보 기입 후 연회비 3만원 입금 (7월 이후 가입 시 2만원)
- (3) 입금 확인 후 티켓 예매 (각 예매처)

공연별 패키지

KBS교향악단이 제안하는 테마별 패키지 공연을 20%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Alive Beethoven 4월(제753회), 7월(제756회), 8월(제757회), 9월(제758회)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거장들이 연주하는 베토벤 음악의 정수

Jaap Van Brahms 3월(제752회), 10월(제759회), 11월(제760회)
뉴욕 필하모닉 음악감독 압 판 츠베덴이 해석하는 브람스 교향곡 전곡

The Korean Pianists 1월(제750회), 11월(제760회), 12월(제761회)
세계적인 콩쿠르를 휩쓴 젊은 한국인 피아니스트들의 열정적인 무대

구매방법

- (1) 티켓인터파크 (<http://www.sac.or.kr/SacHome/sachome/main>) 내 각 패키지명 검색
- (2) 패키지 구매(공연예매권 구매)
- (3) 각 연주회별 예매 페이지에서 공연 예매권을 사용하여 최종 결제

구매안내

티켓 예매처 INTERPARK ^{티켓} 1544-1555 예술의전당 ⁰²⁻⁵⁸⁰⁻¹³⁰⁰

구매 방법 온라인 | 전화 | 현장구매

- ※ 공연 당일 현장구매는 예매 마감 후 잔여 좌석에 한해 가능
- ※ 티켓 예매 마감 시간 및 환불은 각 예매처의 규정을 따름

공연 및 기타 문의 02-6099-7400/7403

www.kbssymphony.org facebook.com/kbssymphony

플러스친구 KBS교향악단('kbssforever')

2020 SEASON OPEN

2020 KBS SYMPHONY ORCHESTRA
SUBSCRIPTION CONCERTS

제 750회 1/30 THU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알렉산더 라자레프 피아노 임동민
리스트 프로메테우스 교향시 5번, S.99
쇼팽 피아노 협주곡 제2번 f단조, 작품21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1번 g단조, 작품13 “겨울날의 환상”
Ⓜ7만원 Ⓞ5만원 Ⓜ4만원 Ⓞ3만원 Ⓞ1만원

제 753회 5/2 SAT 17: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레너드 슬래트킨 피아노 파질 세이
베토벤 레오노레 서곡 제3번, 작품72b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3번 c단조, 작품37
베토벤 교향곡 제7번 A장조, 작품92
Ⓜ9만원 Ⓞ7만원 Ⓜ5만원 Ⓞ3만원 Ⓞ1만원

제 756회 7/16 THU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브람웰 토비 바이올린 제임스 에네스
베토벤 코리올란 서곡, 작품62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61
베토벤 교향곡 제3번 Eb 장조, 작품55
Ⓜ9만원 Ⓞ7만원 Ⓜ5만원 Ⓞ3만원 Ⓞ1만

제 759회 10/31 SAT 17: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얀 판 츠베덴
브람스 교향곡 제3번 F장조, 작품90
브람스 교향곡 제4번 e단조, 작품98
Ⓜ9만원 Ⓞ7만원 Ⓜ5만원 Ⓞ3만원 Ⓞ1만원

제 751회 2/28 FRI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디르크 카프탄 소프라노 황수미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네 개의 마지막 노래”, Trv 296
말러 교향곡 제1번 D장조 “거인”
Ⓜ7만원 Ⓞ5만원 Ⓜ4만원 Ⓞ3만

제 754회 5/21 THU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라몬 테바르 바이올린 레일라 조세포비치
쇼스타코비치 축전 서곡, 작품96
스트라빈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제2번 e단조, 작품27
Ⓜ7만원 Ⓞ5만원 Ⓜ4만원 Ⓞ3만원 Ⓞ1만원

제 757회 8/28 FRI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정명훈 피아노 카타야 부니아티쉬빌리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1번 C장조, 작품15
베토벤 교향곡 제6번 F장조, 작품68 “전원”
Ⓜ12만원 Ⓞ9만원 Ⓜ6만원 Ⓞ3만원 Ⓞ1만

제 760회 11/19 THU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얀 판 츠베덴 피아노 선우예권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제1번 d단조, 작품15
브람스 교향곡 제2번 D장조, 작품73
Ⓜ12만원 Ⓞ9만원 Ⓜ6만원 Ⓞ3만원 Ⓞ1만원

제 752회 3/26 TH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얀 판 츠베덴 첼로 키안 솔타니
슈만 첼로 협주곡 a단조, 작품129
브람스 교향곡 제1번 c단조, 작품68
Ⓜ12만원 Ⓞ9만원 Ⓜ6만원 Ⓞ3만원 Ⓞ1만원

제 755회 6/26 FRI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리 신차오 오보에 드와이트 패리
J. 슈트라우스 헛소리, 작품212
R. 슈트라우스 오보에 협주곡 D장조, TrV 292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7만원 Ⓞ5만원 Ⓜ4만원 Ⓞ3만원

제 758회 9/18 FRI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한스 그라프 피아노 엠마누엘 액스
베토벤 에그몬트 서곡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5번 Eb장조, 작품73 “황제”
베토벤 교향곡 제5번 c단조, 작품.67
Ⓜ9만원 Ⓞ7만원 Ⓜ5만원 Ⓞ3만원 Ⓞ1만원

제 761회 12/24 THU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드미트리 키타옌코 피아노 손열음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20번 d단조, K.466
베토벤 교향곡 제9번 d단조, 작품125
Ⓜ12만원 Ⓞ9만원 Ⓜ6만원 Ⓞ3만원 Ⓞ1만원

※ 상기 프로그램과 출연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Artists, Program, Date and Venue are subject to change.
KBS교향악단 제753회 정기연주회는 4월 대관 사정으로 인해 5월 2일(토) 개최됩니다.

KBS
Symphony Orchestra
750th Subscription Concert

KBS교향악단 제750회 정기연주회
겨울날의 환상 Winter Dreams

지휘 알렉산더 라자레프
피아노 임동민

Concert manager 김지민

주최, 주관 | (재) KBS교향악단

티켓가격
R석 7만 | S석 5만 | A석 4만
B석 3만 | C석 1만

예매
인터넷 티켓 1544-1555
예술의 전당 02-580-1300

문의
KBS교향악단 02-6099-7400

1/30 목요일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31 금요일 19:30 노원문화예술회관

PROGRAM

리스트 | 교향시 5번, “프로메테우스”, S.99 (12')
F. Liszt | Symphonic Poem No.5, “Prometheus”, S.99

쇼팽 | 피아노 협주곡 제2번 f단조, 작품21 (32')
F. Chopin | Piano Concerto No.2 in f minor, Op.21

I. Maestoso (장엄하게) (15')
II. Larghetto (약간 느리게) (9')
III. Allegro vivace (빠르고 활기차게) (8')

INTERMISSION

차이콥스키 | 교향곡 제1번 g단조, 작품 13 "겨울날의 환상" (44')
P. I. Tchaikovsky | Symphony No.1 in g minor, Op.13 "Winter Daydreams"

I. Daydreams on a Winter Journey : Allegro tranquillo (11')
(겨울 여행의 꿈들 : 빠르고 고요하게)

II. Land of Gloom, Land of mist : Adagio cantabile ma non tanto (12')
(황량한 대지, 안개의 대지 : 느리고 노래하듯이, 그러나 지나치지 않게)

III. Scherzo : Allegro scherzando giocoso (8')
(스케르초 : 빠르고 익살스럽고 활발하게)

IV. Finale : Andante lugubre - Allegro moderato - Allegro maestoso (13')
(피날레 : 느리고 비통하게 - 적당히 빠르게 - 빠르고 장엄하게)

※ 상기 프로그램과 연주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CONDUCTOR



지휘
알렉산더 라자레프
Alexander Lazarev

알렉산더 라자레프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지휘자로서 모스크바 음악원을 최고 영예로 졸업한 그는 레오 긴스부르크를 사사하고 1971년 구소련 지휘 콩쿠르, 이듬해에는 베를린 카라얀 지휘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하였다.

1987년부터 1995년까지는 볼쇼이 극장의 상임지휘자 겸 예술감독으로 활동하였는데,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두 직위를 동시에 수행한 인물이었다. 탁월한 리더십으로 볼쇼이 오페라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이끈 그는 도쿄(1989), 밀라노 라 스칼라(1989), 에든버러 페스티벌(1990, 1991), 뉴욕 메트로 폴리탄 오페라(1991) 등 세계 각국의 무대에서의 투어 공연을 전례 없이 성공적으로 마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볼쇼이 오페라단의 여러 작품 중 글린카의 오페라 <황제를 위한 삶(A Life for the Tsar)>, 차이콥스키의 <오를레아의 처녀(The Maid of Orleans)>, 립스키 코르사코프의 <올라다(Mlada)> 등의 공연 실황은 비디오로 제작되었고, Erato 레이블에서 발매한 볼쇼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반들도 큰 사랑을 받았다. 러시아 교향곡의 단골 레퍼토리인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1번>과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8번> 등이 수록되었다. 1992년부터 1995년까지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석객원지휘자로 활동하였으며, 1997년부터 2005년까지는 로열 스코틀랜드 국립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로 재임하며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전곡을 지휘하였다. 최근에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상트 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객원지휘자로 런던, 파리, 빈 등지에서 공연하였다. 그 밖에도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뮌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바바리안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로열 콘서트헤바우 오케스트라, 라 스칼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오케스트라, 프랑스 국립오케스트라,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스웨덴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NHK 심포니 오케스트라,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유수의 오케스트라 및 로열 모네 극장 오페라단, 베로나 극장 오페라단, 바스티유 오페라단, 제네바 대극장 오페라단, 바바리안 국립 오페라단, 네덜란드 오페라단 등 정상급 오페라단을 지휘하였다.

그는 특히 18세기 음악에서부터 아방가르드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평이 나왔다. 1978년에는 볼쇼이 극장에 솔리스트 앙상블을 창단하여 현대 구소련과 외국 작곡가들의 곡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였다. 알렉산더 라자레프는 Erato, Melodiya, Virgin Classics, Sony Classical, Hyperion, BMG, BIS, Linn Records 사 등 다수의 레이블과 작업하며 음반 발매 영역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는 명예 지휘자로 재임중인 재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수석지휘자를 역임하며 Octavia Records 레이블을 통하여 다수의 음반을 발매하였는데, 프로코피예프, 라흐마니노프,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전곡을 발표하였으며, 현재는 글라주노프 시리즈를 완성해나가고 있다.

ARTIST



피아니스트
임동민
Dongmin Lim

1980년 서울에서 출생한 임동민은 다른 천재 피아니스트들에 비해 다소 늦은 나이인 9살에 피아노를 시작하였으나 뛰어난 재능과 피아노에 대한 열정으로 피아노를 시작한 지 불과 2년 후, 삼익피아노 콩쿠르를 포함한 국내외 유수의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며 주변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선화예술중학교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한 임동민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학교에서 수학 도중, 1994년 러시아로 이주, 음악교육의 세계적인 명문, 모스크바 국립음악원, 차이콥스키 음악원에서 가브리엘로프, 부닌 등을 길러낸 명교수인 레프 나우모프 교수를 사사했다. 불과 16살 나이로 국제무대에 데뷔한 그는 1996년 제2회 국제 영 쇼팽 콩쿠르에서 1위를 수상하였으며, 1998년 6월에는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11회 국제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본선까지 진출하기도 했다.

2000년에는 이탈리아 비오티 국제콩쿠르 3위, 2001년 이탈리아 부조니 콩쿠르 3위, 2002년 제12회 국제 차이콥스키 콩쿠르 5위를 차지하는 등, 정명훈, 백혜선에 이어 한국 피아니스트로서는 세 번째 수상자로 이름을 빛냈다.

또한 2004년 제56회 프라하 국제 음악콩쿠르에서 2위를 수상, 세계음악계의 주목을 받고, 2005년 10월 제15회 폴란드 쇼팽 콩쿠르에서 3위에 오르며 세계적인 연주자로 명성을 굳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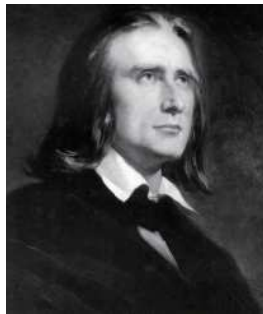
모스크바 국립음악원의 대극장과 소극장을 포함하여, 차이콥스키홀, 모스크바의 국제 음악궁정, 상트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홀, 뉴욕의 스텐웨이홀, 베를린의 콘체르트 하우스, 파리의 살레 쇼팽 프레엘, 바르샤바의 라젠스키 궁정, 런던의 채프만홀, 도쿄의 카잘스홀, 요코하마의 미나토-미라이홀, 오사카의 페스티벌홀, 나고야의 아이치 콘서트홀, 잘츠부르크의 비엔나홀, 프라하의 드보르작홀,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세종문화회관, KBS홀, 통영에서 열리는 윤이상 국제음악페스티벌 등에서 공연하였다.

그가 블라디미르 페도세예프 지휘로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심포니 오케스트라, 알렉산더 드미트리예프 지휘로 상트페테르부르크 심포니, 안토니 비트 지휘의 바르샤바 내셔널 필하모닉과의 공연, 레오쉬 스바로프스키 지휘의 슬로박 필하모닉과의 협연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또한 2008년, 2011년에는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리사이틀로 국내외 팬들로부터 엄청난 갈채를 받았다.

2008년 Sony BMG와 그의 첫 앨범인 베토벤 소나타를 녹음했고, 지난 2011년에는 쇼팽 앨범으로 2집으로 발매했다. 2008년 9월에 그는 한국의 계명대학교의 음악 부교수로 임명되어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교육과 연주를 병행하며 국내외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PROGRAM

NOTE



리스트 교향시 5번, "프로메테우스", S.99
F. Liszt Symphonic Poem No.5, "Prometheus", S.99

작곡년도 | 1850년 (헤르더 동상제막식 축하공연을 위한 서곡으로 작곡)
초 연 | 1855년 10월 18일, 교향시로 개작하여 브라운 슈바이크에서 공연
편 성 | 피콜로, 플루트2, 오보에2, 잉글리시호른, 클라리넷2, 바순2, 호른4, 트럼펫2, 트롬본 3, 튜바, 팀파니, 현5부
연주시간 | 약 12분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프로메테우스'는 '티탄' 신족에 속한 신으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인간에게 꼭 필요한 불을 가져다준 신이다. 그 이름 자체에 '미리 아는 자'라는 뜻이 있는 만큼, 프로메테우스는 매우 지혜롭고 선견지명이 있었다.

작곡가 리스트는 프로메테우스를 주제로 한 작품을 1850년에 처음으로 작곡했다. 그해 바이마르에서는 독일의 철학자이자 작가인 헤르더(Johann Gottfried von Herder)를 기념하는 동상 제막식이 있었고, 바로 이 행사를 위해 리스트는 헤르더의 <해방된 프로메테우스(Der entfesselte Prometheus)>를 바탕으로 서곡과 합창곡을 완성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연주시간 1시간에 이르는 대작으로, 이와 같은 대규모 극음악을 자주 무대에 올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으므로, 리스트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1852년부터 프로메테우스의 새로운 버전으로 작곡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여 1855년에 완성된 작품이 리스트의 교향시 '프로메테우스'로, 이 곡은 그해 10월 18일에 초연됐다.

본래 헤르더의 희곡을 바탕으로 한 극음악으로 출발한 작품이니 만큼, 리스트의 교향시 '프로메테우스'에는 관현악곡이지만 매우 드라마틱한 성격이 있다. '빠르고 정력적으로, 매우 급격히'(Allegro energico ed agitato assai)라고 써있는 이 곡의 도입부는 마치 천둥이 내리치듯 강하게 연주되는 프로메테우스의 주제 시작한다.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이 주제는 '미리 아는 자'로서의 프로메테우스의 날카로운 직관과 개척정신을 드러내는 듯하다.

이후 제46마디에서 '빠르고 매우 정열적으로(Allegro molto appassionato)'라는 표현 지시가 나타나고, 이 장면에서 휘몰아치듯 격정적이고 고통스러운 음악이 연주된다. 이는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줌으로써 신들의 왕 제우스의 노여움을 사서 큰 형벌을 받게 된 것과 관련된다. 제우스의 미움을 받은 프로메테우스는 카프카스 산의 높은 바윗돌에 가장 무겁고 단단한 쇠사슬로 묶인 채로 매일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 먹히는 형벌을 받게 되는데, 사이 그의 간은 다시 자라나므로 다음날이 되면 프로메테우스는 또다시 독수리에게 간을 내어주어야 했다. 이 같은 큰 고통을 겪으면서도 프로메테우스는 끝내 제우스에게 굴하지 않았다. 프로메테우스의 이런 고통과 불굴의 정신은 리스트의 격정적인 음악으로 잘 드러난다.

이윽고 제129마디 때부터는 첼로가 매우 편안하고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며 분위기를 전환한다. 이 음악은 이는 프로메테우스의 해방, 혹은 프로메테우스의 어머니 '테미스'를 가리킨다는 주장도 있다. 테미스는 티탄 신족의 신 가운데 율법을 관장하는 여신이다.

테미스의 주제가 나타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곡의 템포는 '빠른 보통속도'(Allegro moderato)로 바뀌고 '푸가'가 나타난다. 비올라로 시작해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이 차례로 주제를 모방하는 '푸가'는 이 교향시의 중간에 나타나며, 이 푸가 주제 자체는 프로메테우스의 동생 '에피메테우스'를 나타낸다고 한다. '에피메테우스'라는 이름에는 '나중에 아는 자'라는 뜻이 있으며, 그 이름 그대로 에피메테우스는 그리 지혜롭지 못하여 판도라를 아내로 맞이하는 실수를 범하는 바람에 판도라의 상자에서 튀어나온 온갖 해악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었다. 리스트의 '프로메테우스' 중간 부분에 등장한 에피메테우스는 푸가의 주제가 되어 복잡하게 얽히며 미궁으로 빠져드는 듯하지만, 결국 간결 명확한 프로메테우스의 강력한 주제로 극복된다. 그리고 이 교향시의 말미에서 여신 '테미스'의 주제가 프로메테우스의 해방과 승리를 나타내듯 감동적으로 연주되며 교향시의 긍정적인 결말을 이끌어낸다.

PROGRAM

NOTE



쇼팽 피아노 협주곡 제2번 f단조, 작품21
F. Chopin Piano Concerto No.2 in f minor, Op.21

작곡년도 | 1829~1830년
초 연 | 1830년 3월 17일, 바르샤바 국립극장에서 쇼팽 자신의 독주로 이루어짐
편 성 | 플루트2, 오보에2, 클라리넷2, 바순2, 호른2, 트럼펫2, 베이스트롬본, 팀파니, 현5부
연주시간 | 약 32분

'피아노의 시인'이라 불리는 프레데릭 쇼팽은 피아노 독주를 위한 작품을 여러 곡 남겼지만, 피아노와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하는 '피아노 협주곡' 분야에는 단 2곡만 남겼고 그마저도 청년기의 초기 작품이다.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2곡은 쇼팽이 갓 스무 살이 될 무렵에 완성한 청년기의 작품이며 당대의 뛰어난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훔멜과 모셀레스, 필드 등의 영향이 엿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아노 음악의 대가'로서의 쇼팽의 개성은 이미 그의 피아노 협주곡에서 충분히 드러난다. 무엇보다 그의 피아노 협주곡에 드러난 미묘한 장식음과 서정적인 선율은 낭만적이고 시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오늘 음악회에서 연주되는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2번 f단조는 사실상 쇼팽의 첫 번째 피아노 협주곡이지만 '피아노 협주곡 2번'이라는 번호를 얻게 되었다. 나중에 작곡된 피아노 협주곡 e단조가 먼저 출판되었기 때문이다. 피아노 협주곡 2번은 쇼팽이 만 19세가 되던 1829년에 완성되었고, 이듬해 바르샤바에 있는 집에서 사적으로 초연된 후 2주 뒤인 1830년 3월 17일에 작곡가 자신의 피아노 연주로 공식 초연되었다. 쇼팽은 이 곡을 초연하자마자 곧바로 폴란드의 국가적 영웅이 될 정도로 유명해졌다. 당시 쇼팽은 이 곡으로 '피아노에 있어서 파가니니(19세기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에 비유될 정도였다. 쇼팽은 1832년 2월 26일 파리에서 다시 이 협주곡을 선보였는데, 당시 이 공연을 본 리스트와 멘델스존은 이 협주곡을 극찬했다.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이루는 전 3악장 가운데서도 매우 낭만적인 제2악장의 아름다움은 특히 돋보이는데, 이 곡은 한 여인에 대한 쇼팽의 마음을 담은 곡으로 알려졌다. 쇼팽의 첫사랑인 그녀의 이름은 콘스탄차 글라드코프스카, 아름다운 소프라노 가수였다. 그러나 쇼팽의 첫사랑은 고작 6개월 동안 지속된 후 곧바로 그의 눈길을 다른 여인을 향했다. 쇼팽은 콘스탄차에 대한 마음을 담은 그의 피아노 협주곡 f단조를 결국 델피나 포토츠키 백작 부인에게 헌정했다. 델피나 포토츠키 부인은 쇼팽이 "사교계의 여왕으로서 가장 존경할만한 분"이라 칭했던 인물로 쇼팽이 사교계에 발을 들일 수 있도록 돕기도 했으며, 쇼팽과 포토츠키 부인은 연인 사이였을 가능성이 있다.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의 1악장 '장엄하게'(Maestoso)는 비장미와 위엄을 갖춘 제1 주제로 시작한다. 먼저 오케스트라의 서주에 이어 피아니스트가 다시 제1 주제를 연주하고, 장식적이고 즉흥적인 성격의 경과구가 이어진다. 다소 애수 띤 분위기의 드라마틱한 제1 주제 비해 제2 주제는 매우 서정적이고 아름답다.

2악장 '약간 느리게'(Larghetto)는 마치 쇼팽 '녹턴'의 협주곡 버전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쇼팽이 이 곡을 작곡할 당시 마음에 두었던 여인 콘스탄차에 대한 로맨틱한 연애감정을 나타내듯 이 곡에서는 특히 주선율을 꾸미는 장식음형이 매우 섬세하다. 때때로 오른손의 장식음은 즉흥적인 느낌을 주며 이러한 즉흥적인 양식은 리스트와 슈만을 감동하게 했다고 한다. 일찍이 리스트는 이 곡에 대해 "그 표현과 찬란한 빛, 부드러운 파토스로 가득하며 완벽한 이상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3악장 '빠르고 활기차게'(Allegro vivace)는 폴란드의 민속춤곡인 마주르카 리듬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빠르고 재기발랄하며 화려한 기교가 펼쳐지고 있어 피아니스트의 기량을 뽐낼 수 있는 곡이다.

PROGRAM

NOTE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1번 g단조, 작품 13 "겨울날의 환상"
P. I. Tchaikovsky Symphony No.1 in g minor, Op.13 "Winter Day dreams"

작곡년도 | 18266년(제1, 2고), 1874년(제3고)
초 연 | (제2고 전곡) 1868년 2월 15일, 모스크바에서 니콜라이 루빈슈타인 지휘의 러시아 음악협회의 연주회 (제3고 전곡) 1883년 12월 1일, 모스크바에서 막스 에르드만드세르퍼 지휘의 러시아 음악협회의 연주회
편 성 | 피콜로, 플루트2, 오보에2, 클라리넷2, 바순2, 호른4, 트럼펫2, 트롬본3, 튜바, 팀파니, 큰북, 심벌즈, 현5부
연주시간 | 약 44분

“이 작품에 드러난 수많은 결점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곡에 애착이 있네. 내 달콤한 유년기의 죄와 같이 때문이지.” 차이콥스키는 그의 친구이자 지휘자인 카를 알브레히트(Karl albrecht)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다. 여기서 “내 달콤한 유년기의 죄”와 같다고 말한 작품은 바로 그의 교향곡 제1번이다. 이처럼 작곡가 스스로 강한 애착을 보였던 교향곡 제1번은, 청년기의 차이콥스키를 닮은 자화상과 같은 작품이다. 러시아 민요를 비롯한 러시아풍의 선율, 발레 음악을 연상시키는 왈츠 리듬에서 청년기의 차이콥스키가 당대 러시아 작곡가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의 교향곡 1번에서도 그의 후기 작품에서 드러나게 될 개성의 싹을 엿볼 수 있다. 후에 차이콥스키는 그의 후원자인 나테주다 폰 메크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그의 교향곡 1번에 대해 “이 교향곡은 미숙하긴 하지만, 나의 다른 성숙기의 작품들보다 오히려 본질적으로 더 낮고 풍부하다.”고 말할 정도로 이 교향곡을 무척이나 아꼈다.

차이콥스키가 그의 첫 번째 교향곡을 완성한 것은 1866년, 26세 때였다. 당시 차이콥스키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을 졸업하고 모스크바 음악원의 교수로서 각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그의 첫 번째 교향곡을 완성했다. 1868년 2월 15일에 모스크바에서 이 교향곡이 초연되었을 때 이 작품은 대중의 큰 호응을 얻었다. 당시 음악회를 지켜본 니콜라이 카슈킨(Nicolai Kashkin)은 “이 교향곡이 대중의 호응을 얻었고 이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은 것이다”라고 적었다.

작곡가 표트르 차이콥스키의 동생이자 전기 작가이기도 한 모데스트 차이콥스키는 작곡가가 “그 어떤 작품보다도 교향곡 1번을 작곡할 당시에 매우 큰 고민과 노력을 기울였다”고 적었다. 아마도 ‘교향곡’이라는 첫 장르에 도전하는 20대 중반의 작곡가라면 누구나 그런 힘겨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의 개성과 악곡 형식 및 발전 기법에 대해 숙달되지 않으면 작곡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교향곡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이콥스키는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의 첫 번째 교향곡을 매우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해냈다. ‘겨울날의 환상’이라는 부제를 붙인 교향곡 1번에선 러시아의 겨울 풍경을 떠올리게 하는 민속적인 선율과 색채감이 느껴진다.

1악장 ‘겨울 여행의 꿈들 : 빠르고 고요하게(Allegro tranquillo)’는 현악기가 마치 꿈과 같이 몽상적인 소리로 연주를 시작하고 곧이어 플루트와 바순이 연주하는 민요풍의 선율이 귀를 사로잡는다. 이윽고 리드미컬한 울동감을 느낄 수 있는 선율이 연주되며 러시아 춤곡의 활기를 전해준다. 가볍고 투명한 오케스트라의 음색은 마치 멘델스존의 극음악 <한여름 밤의 꿈>을 연상시키기도 하지만, 러시아적인 선율과 리듬과 선율은 흰 눈으로 가득한 러시아의 설원을 떠올리게 한다.

2악장 ‘황량한 대지, 안개의 대지 ; 느리고 노래하듯이, 그러나 지나치지 않게(Adagio cantabile ma non tanto)’는 러시아의 황량한 대지를 연상시키는 현악의 선율로 시작한다. 오케스트라의 현악 연주자들은 악기 소리를 부드럽게 하는 약음기(sordino)를 끼고 연주하기에 그 음색은 더욱 몽환적이다. 이윽고 오보에가 러시아 민요풍의 선율을 연주하고 플루트가 이를 장식한다. 잠시 후 비올라가 연주하는 선율에 작곡가는 ‘애절하게(piangendo) ‘라는 표현 지시어를 적었는데, 그 말 그대로 비올라가 흐느끼듯 연주를 시작한다. 전반적으로 민요풍의 애수 락상이 중심이 되는 곡이다.

3악장 ‘스케르초 : 빠르고 익살스럽고 활발하게(Allegro scherzando giocoso)’는 본래 차이콥스키가 전에 작곡한 피아노 소나타 c#단조 작품80(1865)을 편곡한 것으로, 이 악장 중간 부분의 왈츠만 새로 쓴 것이다. 플루트의 음색이 강조된 경쾌하고 가벼운 색채감은 멘델스존의 음악을 연상시키며, 중간 부분의 왈츠는 차이콥스키의 발레 음악의 왈츠처럼 우아하고 아름답다.

4악장 ‘피날레 : 느리고 비통하게(Andante lugubre) - 적당히 빠르게(Allegro moderato) - 빠르고 장엄하게(Allegro maestoso)’에는 실제 러시아의 민요 선율이 인용되어있다. 서주에 이어 현악기가 ‘정원에 꽃이 피어나고’가 처음에는 우울한 단조로 연주된다. 이 우울한 민요 주제는 이 악장 후반부에 밝은 장조로 변형되는데, 이는 마치 출고 우울한 겨울이 지나고 밝고 화창한 봄이 찾아오는 과정을 나타내는 듯하다. **KBSO**

글 | 최은규 칼럼니스트





KBS교향악단

KBS SYMPHONY ORCHESTRA

KBS교향악단은 1956년 12월 20일 초대 상임 지휘자인 임원식과 창단 연주를 가진 이래 한국 클래식 음악계를 선도하는 최전선의 교향악단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후 홍연택, 원경수, 오토마 마가, 정명훈, 드미트리 키티옌코, 요엘 레비 등 세계 정상의 지휘자들을 거쳤다.

64년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 성장해 온 KBS교향악단은 교향곡에서부터 실내악에 이르기까지 다채롭고 흥미로운 레퍼토리로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KBS교향악단은 백건우, 조성진, 장영주, 길 사함, 정명화, 미샤 마이스키, 파비오 루이지 등 국내외 최고의 지휘자와 협연자들을 초청하여 깊이 있고 수준 높은 연주를 선사하는 정기연주회, 시즌 및 주제별로 다채로운 음악적 접근과 청중과의 소통을 시도하는 초청 및 기획연주회,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없는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까지 매년 100회 이상의 공연으로 10만 명 이상의 관객과 만나왔다.

2019년 한국-폴란드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베토벤 이스터 페스티벌>에 초청받았으며, 세계 최고의 공연장인 오스트리아 비엔나 뮤직페라인 연주회 등을 통하여 문화외교사절단으로 대한민국 클래식 위상을 높이는 기록할 만한 성과를 냈다. 또한 여수음악제, 화이트데이 콘체르토, 직장인 콘서트, 대학교 특집 콘서트 '힘내라 청춘' 등 친근하고 새로운 시도로 대한민국의 클래식 음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KBS교향악단은 2020년도에도 차별화된 연주와 신선한 기획을 통해 청중과 공감하는 대한민국 대표 클래식 문화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MEET THE ORCHESTRA

사장 박정옥

단원

부악장	최병호	트롬본	박홍배● 정다운
제1바이올린	반선경★ 김대훈● 유신혜● 김혜은 황미령	튜바	Norito Usui
	김희진 권혁진 최혜진 강내윤 오지은	팀파니	이영완★
	유지인 이소윤 설현선 김지현 김선우	타악기	장세나 오지에 Matthew Ernster
	선승미	하프	김서원
제2바이올린	고주철★ 임정연● 방영호 채은주 노명희	제 750회 정기연주회	
	이혜영 유주현 김진아 이윤경 박소현	객원 수석	
	박정원 김은근 이조해 황선민	플루트	안명주
비올라	진 덕★ 한넬리● 고은숙 박세란 최진미	호른	Jocelyn Willem
	김지우 유민형 임나유 석지영 박새롬	트럼펫	Marc Inouye
	변은혜 유우정		
첼로	김우진★ 윤여훈● 양윤정 김현정 김소영		
	김희연 정세은 장현경 김신애 유소향		
콘트라베이스	이창형★ 김남균● 안수현● 김상훈 이도용		
	양현주 유주연 장한별		
플루트	김태경● 이철호 전서영		
오보에	이지민★ 김종아● 윤혜원 조성호		
클라리넷	손한요● 박 한		
바순	박준태★ 고주환● 김소연 정순민		
호른	정종진● 정희찬 조세영 조현우		
트럼펫	정용균● 김주원● 김승헌		

★ 수석 PRINCIPAL
● 부수석 ASSISTANT PRINCIPAL

사무국

사무국장 남철우

공연기획팀

팀장 손유리
과장 조병근
과장 유정의
과장 김지민

공연지원파트

악보 장동인(대리)
악기 유재식

공연사업팀

차장 김원재
차장 이한신
대리 이미라

경영관리팀

팀장 손대승
차장 강길호
과장 유연철
과장 정유진
주임 정주호
비서 김가현

開卷有益

개권유익

책을 펼치면 그 안에
이로움이 있다.

서점다운 서점 영풍문고

영풍문고 전국 지점안내

[서울] 종각충로본점 | 스타필드코엑스몰점 | 강남역점 | 여의도IFC몰점 | 김포공항롯데점 | 홍대점 | 가산마리오점 | 강남포스코점 | 용산아이파크몰점 | 왕십리역점 | 신림포도물점 | 미아롯데점
[인천/경기] 인천터미널점 | 수원NC점 | 의정부신세계점 | 분당오리점 | 죽전이마트점 | 스타필드하남점 | 분당서원점 | 스타필드고양점 | 위례점 | 인천스퀘어원점 | 스타필드시티 위례점 | 구리롯데아울렛점
[부산/경남] 광복롯데점 | 부산대점 | 마산롯데점 | 부산남포점 | 진주점 | 부산하단점 [대구/경북] 포항남구점 | 경산이마트점 | 대구대백점 | 구미롯데마트점
[광주/전라] 광주터미널점 | 목포터미널점 | 전주터미널점 | 군산롯데아울렛점 [대전/충청] 대전터미널점 | 청주점 | 세종점 | 유성점 | 천안불당점



하늘 높은 줄 모르는 혜택

빨간날 혜택이 쏟아진다

- 메가박스** 영화 같은 혜택 "나쇼 무료"
- 미스터피자** 빨간날 치즈처럼 즐거운 혜택!
- SPC해피오더** 딜리버리 행복하게 할인!
- 타다** VIP VAN 이벤트 최대 20% 청구할인
- 번개장터** 빨간날 번개페이 할인
- 컬처티켓 1+1** 빨간날 인기 뮤지컬, 연극 1+1 혜택
- 전가맹점 무이자 2~3개월** 빨간날 5만원 이상 신용카드 결제시 전가맹점 2~3개월 무이자 혜택



빨간날엔BC 혜택확인
페이북(paybooc.co.kr)에서!

※ 행사 기간 : 2019.02.01~12.31
※ 행사 대상 : BC카드 개인 신용, 체크카드 회원 (법인, 선물, Gift카드 제외 / 혜택별 대상이 다른 관계로 이용 전 반드시 이벤트 페이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제휴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페이북 사이트(paybooc.co.kr)를 참고하세요.
- 신용카드 납입은 기계 결제에 위임이 됩니다. -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WE BARE BEARS and all related characters and elements are trademarks of and © 2019 Cartoon Network, A WarnerMedia Company. All rights reserved.

KBS교향악단 후원 가입 안내

후원금은 클래식 문화 보급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 가입문의 02-6099-7404/7407
- 후원계좌 신한은행 140-010-084129 KBS교향악단

	구분	기간	티켓 제공사항	기타 예우사항
메세나클럽 Mécénat Club	1억원 이상	평생	R석 4매/매회(정기,기획)	
	3천만원	10년	R석 4매/매회(정기,기획)	· 아너스 클럽(KBS 바흐) 제공 혜택 포함 · 가입기념 선물 및 감사패 증정
	1천만원	5년	R석 2매/매회(정기,기획)	

	구분	기간	티켓 제공사항	기타 예우사항
아너스클럽 Honors Club	KBS 바흐	5백만원	R석 2매/매회(정기,기획)	· 아래 제공 혜택 포함 · 티켓 추가 구매 50%할인(최대 4매)
	KBS 헨델	4백만원	R석 2매/년 7회(정기)	
	KBS 하이든	3백만원	R석 2매/년 4회(정기)	· 모차르트 제공 혜택 포함 · 공연장 무료주차권제공(공연당 1매) · 예당 VIP룸 사용 시 서비스 제공
	KBS 모차르트	2백만원	1년 R석 2매/년 3회(정기)	· 베토벤 제공 혜택 포함 · 티켓 추가 구매 40% 할인(최대 4매)
	KBS 베토벤	1백만원	R석 2매/년 2회(정기)	· 월간 프로그램북 제공 · 기부금 영수증 발행 · 후원회원을 위한 특별 연주회 초대 · 프로그램북, 홈페이지 명단 게시 · 오픈리허설 참관 기회 제공 · 티켓 추가 구매 30% 할인(최대 4매)

KBSSO 이사회

이사장
김정수 제이에스앤에프 대표이사 회장

감사
김익찬 삼정회계법인 상무

이사
김종립 지투알 고문
정진학 유진기업 사업총괄장 사장
홍승찬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교수
김도영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도경 KBS 시청자센터장
이재우 KBS 예능센터장
국은주 KBS 라디오센터장

KBSSO 후원회

메세나클럽 MÉCÉNAT CLUB

구자관 (주)삼구INC 회장
구자용 (주)E1 회장
김영호 일신방직(주) 회장
김인호 전)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철하 CJ제일제당(주) 부회장
김태근 양지프라임 회장
박선주 법무법인(유) 산경 대표변호사
박은관 (주)시몬느 회장
박정부 한웰그룹 다이소아성산업 회장
안국약품(주)
오석송 (주)메타바이오메드 회장

유승원 동우교역 대표
유재찬 서울장수(주)사장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 행장
이윤세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이재승 평화정공 사장
이재영 L&T렉서스 회장
이충희 (주)듀오 회장
이학노 Superworld교역(주) 회장
정진학 유진기업 사장
최명배 (주)엑시콘 회장
한준호 (주)삼천리 회장

아너스클럽 HONOR'S CLUB

박용하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주)미디어소풍
(주)제삼영상
김선림
김옥영
김옥동

김종수
성낙현
이영숙
이정진
정성주
홍숙경

1/8 수요일 19: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20 New Year Concert

PROGRAM

I. 어우러짐

이영조 | "여명" (黎明)

베토벤 |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를 위한 3중 협주곡 C장조 Op.56 _바이올린 조진주, 첼로 양성원, 피아노 임동혁

INTERMISSION

II. 울림

김종천 | 비익련리 _해금 꽃별, 대금 이명

신귀복 | 얼굴 _테너 김우경

레하르 | 오페레타 <미소의 나라> 중 "그대는 나의 모든 것" _테너 김우경

스코틀랜드 민요 | The Water is Wide _소프라노 조수미, 해금 나리, 테너 박용명

요한 슈트라우스 II | 봄의 소리 왈츠 _소프라노 조수미

번스타인 |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중 "Tonight" _소프라노 조수미, 테너 김우경

오병희 | 창작칸타타 '동방의 빛' 제3부 판 중 3번 희(希) _국립합창단

※ 상기 프로그램과 연주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0 신년 음악회

지휘 정치용

연주 KBS교향악단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 예술의전당

후원 | KBS

I. 어우러짐

첼로 양성원

피아노 임동혁

바이올린 조진주

II. 울림

소프라노 조수미

테너 김우경

해금 꽃별

대금 이명훈

해금 나리

테너 박용명

모듬북 황영남

국립합창단

Concert manager 유정의

PROFILE



지휘 | 정치용

-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
- 코리아안심포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



소프라노 | 조수미

- 이탈리아 <황금 기러기 상 (La Siola d'Oro)> 수상(1993)
- 세계 3대 소프라노 선정(2008)



첼로 | 양성원

-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 페스티벌 오원 예술감독



피아노 | 임동혁

- 국제 청소년 쇼팽 콩쿠르 2위(1996)
- 국제 쇼팽 콩쿠르 3위(2005)



바이올린 | 조진주

- 몬트리올 맥길대학교 부교수
- 클리블랜드 ENCORE Chamber Music 음악감독



테너 | 김우경

-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해금 | 꽃별

-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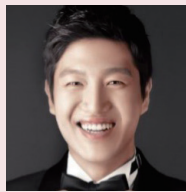
대금 | 이명훈

-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수석



해금 | 나리

- 국악 동요제 작곡부분 동상(1996)
- 체코 필하모닉오케스트라 등 협연



테너 | 박용명

- 메츠 국립음악원, 스트라스부르 국립음악원 졸업
-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국립오페라단 단원 역임



모듬북 | 황영남

-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타악 단원



국립합창단
예술감독 | 윤의중

SAMSUNG



삼성 미세먼지 해결가전은
다릅니다

미세먼지를 털는 것부터
처리까지 완벽해야 하니까
의류전용 미세먼지 필터로
의류청정의 완성도가 다른

삼성 에어드레서

* 해당 이미지는 소비자예를 들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미세먼지 시대의 청정한 해답
삼성 미세먼지 해결가전



무풍에어컨 그랑데 무풍큐브 제트 에어드레서

KBSSO Charity Concert

토요타 자선 병원 콘서트

Concert manager 이한신

주관 | (재) KBS교향악단
후원 | 한국토요타자동차(주)

1/15 수요일 12:30 수원 아주대학병원
1/17 금요일 15:00 대구 가톨릭대학교병원

PROGRAM

하차투리안 | 칼의 춤
비발디 | 사계 中 겨울 2악장 _ 바이올린 반선경
모리꼬네 | 벨라 판타지아
푸치니 | 오페라 <잔니 스키키> 중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_ 소프라노 신지연
이지수 편곡 | Flying Petals, Bite Them Cabbage Down, 만화영화 알라딘 OST
로페즈 |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메들리
림스키 코르사코프 | 세헤라자데

지휘 정주영
소프라노 신지연
바이올린 반선경
사회 송중근(개그맨)
KBS교향악단 체임버

※ 상기 프로그램과 연주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PROFILE



지휘
정주영

• 전)수원시향 부지휘자



소프라노
신지연

• 줄리에타 시미오나토
국제성악콩쿠르 1위



바이올린
반선경

• KBS교향악단 수석



사회
송중근

• KBS 개그맨

1/15 수요일 17:00 분당 제생병원

PROGRAM

하차투리안 | 칼의 춤

바흐 | 오보에와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2악장_바이올린 김대훈, 오보에 조성호

번스타인 | 뮤지컬 <웨스트사이드스토리> 중 “feel pretty”_소프라노 손지수

푸치니 | 오페라 <라보엠> 중 “뮤제타의 왈츠”_소프라노 손지수

이지수 편곡 | Flying Petals, Bite Them Cabbage Down, 만화영화 알라딘 OST

로페즈 |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메들리

림스키 코르사코프 | 세헤라자데

지휘 최혁재

소프라노 손지수

바이올린 김대훈

오보에 조성호

사회 정범균

KBS교향악단 체임버

※ 상기 프로그램과 연주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PROFILE



지휘
최혁재

- 한양대 겸임교수
- 금천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소프라노
손지수

-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졸업
- 오페라 <사랑의묘약> 중 아나다 역 외 다수 출연



바이올린
김대훈

- KBS교향악단 부수석



오보에
조성호

- KBS교향악단 단원



사회
정범균

- KBS 개그맨

1/14 화요일 18:30 고양 국립암센터

1/17 금요일 12:30 부산 해운대백병원



KBS교향악단
금관오중주

KBS교향악단 금관오중주
사회 송준근/정범균(개그맨)

1/14 화요일 12:00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KBS교향악단
타악기앙상블

KBS교향악단 타악기앙상블
사회 송준근(개그맨)



KBS교향악단 최초 음반 발매

세계 최고 레이블 도이치 그라모폰이 함께한 첫 작품!

MAHLER 9

THE ULTIMATE EXPRESSION OF A MAN'S LIFE. THE MOST GLORIOUS MAHLER EVER WROTE
인간 삶의 근원을 표현한 말러 최고의 작품, 말러 9



KBS SYMPHONY ORCHESTRA
YOEL LEVI

MAHLER

SYMPHONY NO. 9

인류에 대한 깊은 사랑, 누구나 잊이하게 될 죽음 중흥 직전에 이르도록 자연의 깊은 영역까지 끌어와주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말러의 소망을 표현한 작품. 그리고 마침내 찾아오는 무한한 운명함과 온전히 몰입되는 영원한 민중이야기

요엘 레비 지휘자의 정교함과 KBS교향악단의 깊이 있는 음색이 만들어낸 가장 '말러'다운 명반

"요엘 레비와 KBS교향악단이 함께한 말러 9편은 전심으로 최고의 명반이다" 크리스토퍼 크리스토퍼

온오프라인(인터파크, 핫트릭스 등) 매장에서 지금 바로 구매 가능합니다.
문의처: KBS교향악단 02-6099-7417

www.kbs.co.kr



모든 걸 체념했을 때
그 돈이 나타났다

KBS 2TV 수목드라마

99억의 남자

조여정

12.4 WEDNESDAY 22:00

김강우

SNS를 통해 교향악단을 만나보세요.

 facebook.com/kbssymphony  twitter.com/kbssymphony

 kbssymphonyorchestra

 YouTube youtube.com/kbssymphonyorchestraKBS교향악단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KBS교향악단(혹은 'kbssoforever')